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1)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범금희*

1. 머리말
2. '가지다' 및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3.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4. 맺음말

【요약】

본 연구는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의 실현양상을 문법화의 어원어 고빈도 원리 및 용언의 상관성에 기대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지다'의 다양한 활용형 중에서 본 연구의 어원적 어형은 해당 토박이말의 [가아/가], [가주고], [가주]였다. 둘째,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아/가], [가주고], [가주]는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텍스트적 출현 횟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어원어에서 나타났던 이동동사 '가다, 오다'는 연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어 가지고}는 '가지다, 가지고, 어 가지고'의 자유 변이형과 활용형들을 모두 포함해서 쓴 것이다.

결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 출현 횟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문법화 과정에서 연결어미 ‘-어’의 영향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대구 토박이말의 경우 어원적 어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가지고]와 [갖고] 어형이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 나타났다. 이는 표준어와 다른 지역어의 영향으로 추정되었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와 관련된 일련의 문법화 현상에 관한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란 어휘적 의미에서 문법적 의미로의 변화를 뜻한다. ‘가지고’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음운론적 축약과 형태적 재구조화 그리고 ‘가지다’의 어휘적 의미가 소실되거나 재분배되어 다양한 의미기능이나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²⁾ 다음은 지금까지 진행된 ‘가지고’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첫째, 음운론적 축약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그것의 정도는 문법화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논의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김태엽(1987), 임규홍(1994), 성광수(1999), 배주채(1997) 등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 (1) 경상도 동북부 지역 : ‘가주고’, ‘가’
경상도 서부 지역 : ‘가이고’

2) 후치사화와 어미화란 일종의 문법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어미화는 후치사화보다 더 나아간 문법화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가 ‘조사’나 ‘어미’로 기능적 의미가 강화된 것은 문법화의 정도가 거의 연결된 단계임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이정애 2002).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 ‘갖고’, ‘가지구’, ‘갖구’
그 외 지역 : ‘가지고’

(임규홍 1994, 성광수 1999)

(2) 가지고> 갖고(‘이’ 모음 탈락, 문법화 단계 높음)

(배주채 1997)

둘째, {가지고} 및 {어 가지고}의 의미-문법론적 특성을 논의 하며 용언과의 관련 현상에 주목한 연구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홍 윤표(1984), 배주채(1994) 이정애(2002), 범금희(2002ㄱ, ㄴ) 등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3)(a) 두: 손이 딱 [몽꺼 갖고] 있을께~두:손이 딱 [몽껏고] 있을께.
<존재 용언>

(b) 도장 [찍어 갖고] 오랍디다~도장 [찍엇고] 오랍디다. <이동 용언>
(배주채 1994)

(4)(a) 철수는 책가방을 가지다. + (철수가) 간다. <기저형>

(b) 철수는 책가방을 가지고 간다. <[수반]의 의미>

(c) 철수는 책가방가지고 간다. <후치사화, 이동동사, [수반]의 의미>
(이정애 2002)

(5) <<[+보유]의 중심적 의미로 쓰인 경우>>

A: “~{-을/ -로} ~ ‘가자, 가주, 가아, 가’ ~ ‘가다, 오다, 나오다’”

B: “~{ψ} ~ ‘가지- + (-으)러’ ~ ‘오다’”

<<의미 기능이 변화된 경우>>

a) [+보유] [+수단] [-이동]

C: “~{-을/로} ~ ‘가지골랑, 가주고 ~ ‘누르다, 딱다, 치다 등

b) [+보유] [-수단] [+이동]

D: “{-에} ~ ‘갖다, 갖다가’ ~ ‘놓다, 놓다, 시키다, 하다 등”

c) [-보유] [-수단] [-이동]: “~{-을} ~ ‘갖다가’ ~ ‘하다’”

(범금희 2002ㄱ)

위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층 만 들기 현상’은 발화시에 나타나는 ‘가지고’ 및 ‘어 가지고’와 어울려 나타나는 용언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한 언어적³⁾ 현상의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⁴⁾ 이는 계량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언어 관계 - 어휘들이 서로 공기하여 기대치 이상으로 자주 쓰인다면 그 출현 환경에 어떤 언어학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이 있음⁵⁾ - 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지다’의 활용형

-
- 3) 언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광의의 언어는 어휘들의 단순한 공기 현상으로 규정되며 협의의 언어는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를 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휘소들 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로 규정된다(차재은 2003). 또한 언어는 구성 요소의 의미 반영 면에서는 자유 결합과 가깝고, 빈도수나 심리적 현저성에서는 관용어에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4) 의미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어 가지고}는 ‘가지다’의 의미보다는 연결어미 {어서}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지다’의 어휘적 의미인 [+보유]가 점차 약화 또는 상실되면서부터 앞에 나타나는 연결어미 {어}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줄고(200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 5) 패턴(Pattern)이란 한 어휘의 의미 기능에 기여하는, 어휘와 그 어휘와 일정하게 조합되는 구조로, 언어(Collocation), 관용구(Idiom) 등과 함께 말뭉치 언어학 및 언어 교수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패턴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며 그 경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패턴을 한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성이며 관용구 또는 문법적 공기 관계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자는 카터(Carter 1987)이고, 굳은 표현(routines)과 패턴을 구분하여 반구조화된 구조(semi-preconstructed phrase)로 정의하고 있는 학자는 앨런(Alan 1998)이다(남길임 2006).
- 6) 박병선(2005)에서는 어떤 관찰 중심어(node, base)에 대해 공기하여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중심어에 대해 언어성이 높다고 본다면, 바로 인접하는 경우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심어와 함께 한 문장에 자주 공기하는 단어에도 높은 언어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계량언어학에서의 일반적 관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외국 연구 사례를 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좌/우 각 2-5어절 이내의 공기 단어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가지고’를 대상으로 <가지+X형>, <갖+X형>이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형태를 ‘어형’이라 설정한 다음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텍스트적 빈도와 문법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사소통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이미 친숙히 알고 있고, 또 그런 새로운 것과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를 이용하는⁸⁾, 한 언어에서 문법화를 위해 선택하는 문법소는 그 어원어의 텍스트적 빈도가 매우 높다는 어원어 고빈도 원리(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 이성하, 1999)⁹⁾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가지다’의 활용형에서 문법화와 관련된 어형 중에서 어원적 어형을 결정하고 그것의 출현 횟수를 통해 문법화 현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구비문학대계(대구편)」에 실려 있는 제보자¹⁰⁾ 관련 정보 - 그들의 태생 지역, 혼인 그리고 직업 관련 정보 - 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토박이들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이 발화한 설화 총 36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해당 자료가, 국어 학자들이 채록하고 전사한 자료가 아니라는 특성과 다음의 연구에

7)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2.1.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8) 슬로빈(D. L. Slobin)은 의사소통 상에서의 언어 형식이 지니는 4가지 조건을 “①명확해야 한다, ②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분석·처리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신속하고 쉬워야 한다. ④표현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박종갑 2006).

9) 이와 유사한 생각은 이미 기본(T. Givon, 1981: 51)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한 어원어가 의미의 일반성이 높으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텍스트적 빈도가 높아지면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그 단어가 의미 협상의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문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10)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는 각 기관별 제보자 기술 방법에 따른다. 일부의 예를 들면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1 동구 지묘동, 최부교, 남 74, 자료: 1-4 / 제보자 3 동부 불로 1동, 이희준, 남 69, 자료: 14, 19 등이다.

서 다루게 될 서울 토박이말과의 비교를 고려해 자료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업선된 제보자에 따라 선정된 텍스트 자료는 해당 어형이 포함되어 있는 문맥을 직접 찾아내어 입력한 다음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색인하였다. 그런 다음 그것의 양상별 패턴을 추출하고, ‘가지다’, ‘가지고’,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의 유형 분류 및 그것의 용언 관련 실현양상을 분석·통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의 업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미비점을 극복하며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것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가지다’ 관련 어형과 ‘가지고’ 및 ‘어 가지고’ 관련 어형들의 어원적 상관성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들과 어울리는 용언의 실현양상이 문법화와 관련 있으며 그것 또한 어원어의 텍스트적 빈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가지다’ 및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2.1. 어형과 유형 분류

대구 토박이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추출해 본 결과, ‘가지다’ 관련 활용형으로 ‘가아, 가, 가주고, 가주, 가져, 가질로, 가아다가, 갖다, 갖다가, 갖다아¹¹⁾’가 나타난다. 이런 활용형들을 본 연구에서는 ‘어형’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현대 국어에서 ‘가지다’ 관련 활용형 중 ‘가지고’나 ‘가지.’의 준말에 해당하는

11) 이들 어형은 [] 기호 안에 넣어서 다룰 것이다.

‘갖고(가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자료 역시 그 두 가지 형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가지고’나 ‘갖고’와 관련되어 실제로 나타나는 활용형이 다양하다고 보고 그것을 지칭하고 분류하기 위한 결과의 명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어형’이라 함은 ‘가지-’를 포함한 형태와 음변화에 의한 어간 축소에서 일어나는 ‘가지-’의 준말에 해당하는 ‘갖-’의 자유 변이 형태이면서 동시에 그것들과 관계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용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가지+X형>, <갖+X형> 아래 설정된 구체적 활용형들 하나 하나를 ‘어형’이라 한다.

앞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X>형과 <갖+X>형으로 나누어 재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대구 토박이말 ‘가지다’ 관련 어형

<가지 +X> 형 ¹²⁾					<갖 +X> 형	
A	B		C	D	E	F
가아(13) ¹³⁾ / 가(8)	B-1	가주고(10)	가져 (2)	가질로 (1)	가아다가 (1)	갖다(54) ¹⁴⁾ / 갖다아(1)
	B-2	가주(6)				갖다가(8)

위 표에 의하면 <가지+X>형에 속하는 유형은 모두 5개로서 A ~ E 가 그것이다. A와 B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가지고’ 관련 유형으로서 전자는 21회 출현하고, 후자는 16회 출현한다. 아래가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12) 유형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할 때는 A, B, C 등의 영문자를 사용한다.

13) 부정형 ‘안 가아(1)’을 포함한 숫자이다.

14) ‘안 갖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 (6) 그 돈 우리 집에 안 썼는기요. 돈 가 가소 (162-12)
 (7) 어데 가아 오나? 안 가아 오지.(23-12)
 (8) 또 가주 나왔다. (14-17)
 (9) 그래 그마 그 돈을 가주고 떡 나갔다 말이라. (147-9)

위의 예는 문법화와 관련 있는 어형으로서 앞으로 3장에서 논의하게 될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어원적 어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C~E는 ‘가지-’ 어간 다음에 연결어미 ‘-어’ 나 ‘-(으)러’, ‘-아다가’가 결합된 것으로서 출현 횟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은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 (10) 인자 연장을 한그석 가져 왔다 말이야 (144-17) [가지+-어]
 (11) 그래 내가 대 가질로 왔다. (165-18) [가지+-(으)러]
 (12) 집도 문 쟁기가주고 저걸 가아다가 움막을 딱 매놓고...
 [가+-아다가]

<갖+X>형에 속하는 유형은 1개로서 F가 그것이다. 이것은 ‘갖-’ 어간 다음에 연결어미 ‘-다(아)’ 또는 ‘-다가’가 결합된 것으로 총 63회 출현한다. 아래가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 (13) 범이 물어다가, 그 문 아케 갖다 좇어. (45-13)
 (14) 그 귀더릴 찌르다가 마 도랑 내머리 갖다 아무도 모르구로 ...
 (15) 범굴이 있는데, 덩, 우에 갖다가 턱 나라 놓는다 말이다.
 (167-44)

위와 같이 설정된 어형과 유형을 바탕으로 대구 토박이말을 살펴보면 <가지+X>형의 A는 [가아/가] 어형으로서 총 21회 나타나고 B-1은 [가주고] 어형으로서 10회 나타난다. 그리고 B-2는 6회 나타난다. <갖+X>형의 [갖다가]와 [갖다아/갖다] 어형은 모두 합해 63회 나타난다. 이 중에서 논의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결어미 ‘-고’

가 아닌 다른 연결어미가 붙은 어형을 제외한 어원적 어형은 위의 예 (6)~(9)번에 나오는 [가/ 가아], [가주], [가주꼬]이다.

2.2. ‘가지다’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해당 토박이말의 ‘가지다’ 관련 어형과 어울려 나타날 수 있는 후행 동사의 전체 실현양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대구 토박이말 ‘가지다’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동사 전체)

<가지 +X> 형					<갖+X> 형
A	B	C	D	E	F
오다(9) 가다(2) 내빠다(1) / 가다(7) 오다(1)	가다(2) 문장(2) ¹⁵⁾ 물다(1) 나가다(1) 내려가다(1) 타다(1) 댕다(1) 꿏이다(1)	오다 (2)	오다 (1)	매놓다 (1)	주다(16) 놓다(12) 물다(6) 녕다(4) 내버리다(3) 팔다(2) 띄우다(2) 키우다(1) 입히다(1) 쓰다(1) 놓다(1) 맞추다(1) 가두다(1) 되다(1) ¹⁶⁾ 해버리다(1) 맞대다(1) / 띄우다(1)
	나오다(2) 내려오다(2) 가다(1) 물다(1)				가두다(2) 맞다(2) 목다(1) 내려놓다(1) 가져오다(1) ¹⁷⁾ 매다(1), 쫓다(1)

위 표를 살펴보면, <가지+X>형의 A는 ‘가다, 오다, 내빠다’ 동사가, B는 ‘가다, 나가다, 나오다, 내려가다, 내려오다’ 등의 동사가

15) 일반적으로 계량언어학에서는 해당 어형의 문장이 중심어를 중심으로 좌/우 각 2-5어절 이내를 벗어나면 문장 접속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구어 텍스트이기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문장에서 ‘가지고’ 뒤에 인용문과 대화문 같은 것이 나타나면 문장이라 처리했다.

16) 부정형 ‘안-’이 나타난 형태이다.

17) 부정형 ‘안-’이 나타난 형태이다.

나타난다. C와 D는 ‘오다’ 동사가 나타난다. 즉 A~D 유형은 모두 이동동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E는 ‘매놓다’라는 타동사가 나타난다. 위 (6)~(12)의 예가 그것이다.

<갓+X>형의 F는, 이동동사가 나타나지 않고, ‘키우다, 입히다’ 등의 사동사와 ‘안-’ 부정형, 그리고 타동사와 합성동사가 출현한다. 위의 (13)~(15)가 그 예에 해당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F의 경우, ‘갓-’ 어간으로 인해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어간이 줄어든 ‘갓-’은 그 원래적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다른 동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허용하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거기에다 연결어미 ‘-다가’¹⁸⁾나 ‘-다(아)’의 결합은 결국 연결어미 ‘-고’가 나타나는 <가지+X>형이나 <갓+X>형과는 다른 의미기능이나 문법화 단계로 진행하게 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갓+X>형은 <가지+X>형과 다른 의미기능과 문법화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지+X>형의 C~E 역시 앞의 F처럼 어미 ‘-고’가 아닌 다른 연결어미와 타동사 출현으로 인해 연결어미 ‘-고’와 이동동사가 나타나는 <가지+X>형과는 다른 의미기능 및 문법화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1.과 2.2.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가지고’의 문법화와 관련된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와 용언의 상관성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어원적 어형은 [가아/가], [가주고], [가주]이다.

2.3.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2.2.에서 논의한 ‘가지다’ 관련 어형 중 ‘가지고’와 관련 있는 어원적 어형만 정리해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8) ‘갓다가, 갓다’의 표면적 구조와 의미·문법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줄고(2002 7)를 참고하라.

<표 3>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관련 어형

<가지 +X> 형		
A	B	
가아(13)/ 가(8)	B-1	가주고(10)
	B-2	가주(6)

이를 후행하는 동사로 바꾼 다음 유형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관련 어형 실현양상(동사 전체)

<가지 +X> 형		
A	B	
가다(2), 오다(9), 내빼다(1) / 가다(7),오다(1)	B-1	가다(2), 문장(2), 나가다(1), 내려가다(1) 물다(1), 타다(1), 댕다(1), 꿏이다(1)
	B-2	가다(1), 나오다(2), 내려오다(2), 물다(1)

위 표를 살펴보면, A는 [가아/ 가] 어형으로서¹⁹⁾ ‘가다, 오다, 내빼다’의 이동동사가 나타난다. 다음이 그 예이다.

(16) 저 은금보화를 가 [와], 그거 가 [가자].”꼬(156-16)

(17) 비로 가아 고마 이 늬이 [내뺏뻐어].(23-8)

B-1은 [가주고] 어형으로서 이동동사와 ‘물다, 댕다, 타다’의 타동사 그리고 ‘꿏이다’라는 사동사가 나타난다. 더불어 ‘문장’이 접속된 것도 나타난다. 다음이 그 예이다.

(18) 가주고 고마 [물고], 고내이 이 늬이 물고... (14-24)

19) 이 두 개의 어형은 <한국구비문학대계(대구편)>에서 표기상으로는 구분되거나 발화속도를 반영한 것이라 한다면 굳이 구분해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은 없을 듯하다. 단지 표기상 구분을 위해 ‘ / ’ 기호를 사용하였다.

- (19) 몽두리를 가주고, [“이 늬, 어떤 늬이 와가주 이카노?”]카미,
- (20) 꼴로 가주고 [꺠이가] 꼴물로 꺠이가 ...
- (21) 돈을 가주고 떡 [나갔다] 말이라. (147-9)
- (22) 옷을 가주고, 마 날을 [뺏으미] ...

B-2는 [가주] 어형으로서 이동동사와 타동사가 함께 나타난다. 다음이 그 예이다.

- (23) 아이 그거, 가주 [가라고] 이 늬의 개 같거치이썰아...
- (24) 그래 인자 그 개를 가주 [몰아다] 났다. (14-16)
- (25) 이 똥똥 멍친 걸 가주 [니러왔어]. (99-17)
- (26) 돈을 팔십 냥을 가주 [나와서], 팔십 냥을 가주고 나와서 ...

이와 같이 B에서 더 다양한 동사가 출현한다는 것은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기능이 B에서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²⁰⁾ 이와 같은 현상이 동반됨은 용언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판단하게 해 주는 근거가 된다.

선행 연구²¹⁾ 중에는 문법화의 단계와 음운론적 축약은 정비례 관계로서 축약이 심하면 심할수록 문법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기술한 것이 있다. 만약 기존의 논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음운적 또는 형태적 축약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가아/가] 어형이기에 문법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고 기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적어도 연결어미 ‘-어’가 ‘가지고’ 관련 어형과 결합할 때와 결합하지 않을 때로 나뉘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지고’ 관련 어형 중에는 축약이 심한 어형일수록 문법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간단하게 기술할 수 없는 예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연결어미 ‘-어’가 결합하지 않고 이동동사가 나타는 어형이

20) 줄고(2002 ㄱ)를 참고하라.
21) 제1장 머리말을 참고하라.

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기²²⁾ 때문이다. 그것은 추출된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A의 경우 해당 어형이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기능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문법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의미 상실이나 의미 재분배’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음운적 축약이 심함에도 해당 의미기능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 의미기능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운적 축약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떤 용언과 어울려 나타나냐라는 점이 문법화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지 않은 상황도 관련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지고’ 관련 어형의 경우, 연결어미 ‘-어’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운적 축약보다는 용언의 기능이 문법화에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B-2의 경우, B-1에 비해 출현하는 동사의 목록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동사의 출현으로 A보다는 의미의 상실이나 의미의 재분배가 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동동사의 출현과 의미기능의 변화 양상은 위의 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를 정리해 따로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다음의 표는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실현양상(동사 공통)

<가지 +X> 형		
A	B	
가다(2) / 가다(7)	B-1	가다(2)
	B-2	가다(1)

22) 줄고(2002-1)을 참고하거나 머리말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라.

위 표에서 모든 어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다’로서 이는 이동동사이다. 모든 어형에 동일한 동사가 나타나지만 텍스트적 빈도를 고려한다면 A가 9회 출현함으로써 B보다 ‘가지다’의 원래 의미기능에 더 가까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²³⁾ 이는 이동동사가 적게 출현한 B에서 의미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어휘가 서로 공기하여 기대치 이상으로 자주 쓰인다면 그 출현 환경에 어떤 언어학적 특성이 비교적 뚜렷이 있다는 계량언어학적 관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화시에 나타나는 ‘가지고’ 관련 어형은 그들과 어울려 나타나는 용언에 의해 그 출현 환경(표면적 구조)을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의미기능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 문법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3.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3.1. 어형과 유형 분류

해당 토박이말에서 나타나는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은 다양하다. ‘어가, 어가아, 어가주고, 어가주고는, 어가주곤, 어가주골랑, 어가주구선, 어가주고요, 어가주, 어가지고, 어가지고는, 어가꼬, 어가꼬는, 어가여, 어갓고, 어갓고는, 어갓구, 어갓고여’가 그것이다. 이를 다시 ‘가지고’ 관련 어형처럼 <어 가지+X>형과 <어 갓+X>형으로 나누어 배치한 결과가 다음의 표이다.

23)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02-7)를 참고하라.

<표 6>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관련 어형

<어 가지 + X> 형				<어 갖 +X> 형		
A	B	C	D	E	F	
어가아(7)/ 어가(664)	B-1	어가주(280)	어가지고(155)	어가여(2)	어갓고(3)	어갓고여(1)
		어가주(3)			어갓구(1)	
		어가주(1)	어가지고(2)		어가(2)	
		어가주(1)			어갓(2)	
		어가주(1)			어갓(1)	
	B-2	어가주(20)		어갓(1)		

위 표에 의하면 <어 가지+X>형은 모두 4개로서 A~D가 그것이다. A는 <가지+X>형의 [가아가] 어형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총 671회 출현했다. B는 <가지+X>형의 [가주] 어형과 관계있는 것으로서 총 307회 출현했다. C는 <가지+X>형에서 추출된 예가 없으나 [어 가지+X]형에서는 총 157회 출현했다. D도 C와 마찬가지로 <가지+X>형에서 추출된 예가 없으나 [어 가지+X]형에서는 2회 출현했다. 아래가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 (27) 서울로 가가 과계를 보인게 마 일반, 이 사램이 했뵤다. (90-40)
- (28) 백가질 잡아가여 대안에다가 땅을 파고... (89-27)
- (29) 이 정승은 안따나 아 나이 좀 짧어가주고 아 놀 그런 난테,
(172-1)
- (30) “이거 팔아가주고요, 우야든지 그거를 인자 양석을 ... (23-4)
- (31) 그래 떡 와가주골랄 있어이게 고 날짜에 올라 커는 날짜에 ...
(22-6)

<어 갖+X>형은 모두 2개이고 E~F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은 ‘가지.’의 줄어든 꼴 어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E의 경우 총 8회 출현했고, F의 경우 단 1회 출현했다. 다음이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 (32) “장개 가, 채리가꼬 가며는 저어 고모낭게 구리가 앉아서 ...
(14-4)
- (33) 에라 마 저 동네 가갓고 까짓 밤에 죽을 늪이 아무테나 ...

위와 같이 설정된 어형과 유형을 2장에서 다룬 어원적 어형과 대응시켜 살펴보면 해당 지역 토박이말의 경우, 어원적 어형과 유사한 것은 <어 가지+X>형의 [어가아/ 어가] 어형과 [어가주고] 관련 어형, [어 가주] 어형이다.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에 대응시켜 살펴봐도, 결국 2장에서 논의한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아/가], [가주고], [가주] 어형의 출현 횟수가 그대로 [어 가지+X]형에 비례 관계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어원적 어형이 문법화의 어원어 고빈도 원리에 상응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3.2.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1) 어원어 어형의 실현양상

앞의 2장에서 논의한 ‘가지고’ 관련 어형 중에서 ‘어 가지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원적 어형만을 추출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관련 어형

<가지+X> 형		
A	B	
가아(13)/가(8)	B-1	가주고(10)
	B-2	가주(6)

<표 8>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관련 어형

<어 가지 + X> 형		
A	B	
어가아(7) / 어가(664)	B-1	어가주교(280)
		어가주고는(3)
		어가주곤(1)
		어가주꼴랑(1)
		어가주구선(1)
		어가주교요(1)
	B-2	어가주(20)

위의 표는 ‘가지고’ 관련 어형의 <가지+X>형과 ‘어 가지고’의 <어 가지+X>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형을 추출해 비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2장에서 논의한 ‘가지고’ 관련 어형이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뒤에도 관련 있음을 그 어원적 어형의 출현 횟수 및 어형별 비교를 통해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좀 더 살펴보면, <가지+X>형의 A가 다른 유형보다 많이 출현한다. 어원적 어형의 이런 현상처럼 연결어미 ‘-어’가 나타난 <어 가지+X>형의 A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이 출현한다. 그리고 <가지+X>형과 <어 가지+X>형도 어원적 어형과 비교해 살펴보면 어원적 어형이 텍스트에서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다. 연결어미 ‘-고’가 붙은 <가지+X>형의 B-1와 <어 가지+X>형의 B-1의 차이가 그것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어 가지+X>형의 B-1에 ‘-는, -ㄴ, -ㄴ랑²⁴⁾, -요, -선’의 조

24) 대구 토박이말의 ‘-ㄴ랑’은 ‘-고’ 다음에 나타난다. ‘-ㄴ랑’에 대해 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ㄴ랑 : 조사 (받침 없는 체언이나 조사 ‘에, 에서’, 어미 ‘-고서, -어서’ 따위 뒤에 붙어) (구어체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정하여 가리키는 데 쓰는 보조사. 흔히 뒤에 는 충고하는 말이 온다. ¶돈 꾸어 달라는 애길랑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

사²⁵⁾가 붙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형과 다르게 <어 가지+X>형의 B-1는 뒤에 어미 ‘-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추정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어 가지+X>형의 A와 B-2는 뒤에 연결어미 ‘-고’가 없기에 어간에 직접적으로 조사들이 결합할 수 없고 따라서 B-1처럼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나타난다. 즉,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갖고] 어형이 <어 갖+X>형에서 나타나며, 더불어 <어 가지+X>형에서도 안 나타났던 [가지고] 어형도 <어 가지+X>형의 [어 가지고] 어형에서 나타난다. 이 외에도 [어가여]와 [어갖고여] 어형도 <어 가지+X>형과 <어 갖+X>형에서 나타난다. 다음이 그것이다.

<표 9> 대구 지역어 ‘어 가지고’ 관련 어형

<어 가지 + X>형		<어 갖 +X>형	
C	D	E	F
어가지고(155)	어가여(2)	어갖고(3)	어갖고여(1)
		어갖구(1)	
어가꼬(2)			
어갖고는(1)			
어가지고는(2)		어가꼬는(1)	

위와 같이 어원적 어형이 아닌 것이 나타나는 현상은 문법화의 층만들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표준어의 적극적인

라./그 반질랑 아예 팔 생각 마라./할머니 댁에서 며칠 보내고설랑 또 고모 댁으로 가야지.>

- 25) ‘-선’의 경우 ‘가지+고서+ㄴ’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ㄴ’만이 조사에 해당되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선’을 조사라 하겠다.

수용과 다른 지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이 해당 자료이다.

- (34)(a) 경상도 동북부 지역 : ‘가주고’, ‘가’
- (b) 경상도 서부 지역 : ‘가이고’
- (c)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 : ‘갓고’, ‘가지구’, ‘갓구’
- (d) 그 외 지역 : ‘가지고’

(임규홍 1994, 성광수 1999)

기존의 연구에서도 보듯이 대구 토박이말이 포함되는 지역은 (a)이다. (a)에 나타나는 어형은 ‘가주고, 가’로서 이것은 본 연구의 어원적 어형에 해당되고 또한 자료를 추출해 본 결과 그 출현 횟수가 많음을 이미 앞 장에서 논의하였다. 실제로 <한국구비문학대계(대구편)>의 제보자 관련 정보를 참고한 다음 충청도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과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의 설화 자료를 살펴보니 (c)와 (d) 예들이 나타났다²⁶⁾. 따라서 어원적 어형이 아닌 것은 다른 지역어와 표준어의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동사 실현양상

해당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 어울려 나타날 수 있는 선행 동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²⁷⁾

26) 해당 자료는 줄고(2002 ㄱ, ㄴ)를 참고하라.

27) 출현 목록 중 대략 횟수가 많은 것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표 10>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실현양상(동사 전체)

<어 가지 + X>형				<어 갖 +X>형	
A	B	C	D	E	F
가다(36) 하다(52) 안하다(1) 못하다(1) 되다(22) 안되다(1) 오다(20) 못오다(1) 나오다(10) 잡다(11) 나가다(3) / 가다(1) 하다(1) 되다(1)	가다(36) 하다(52) 못하다(1) 안하다(1) 오다(20) 못오다(1) 되다(22) 안되다(1) 사다(16) 잡다(11) 팔다(12) 나오다(10)	가다(7) 하다(21) 되다(5) 오다(6) 나가다(1) 나오다(2) 팔다(2) 잡다(3)	잡다(1)	가다(1) 하다(1) 처박히다(1)	되다(1)
	오다(1) 나오다(1) 뉘다(1)		사다(1)	
	오다(1)		오다(1) 차리다(1)	
	오다(1)		x	
	팔다(1)	쓰다(1)		붙다(1)	
	하다(1) 오다(2) 나오다(1) 사다(1) 입히다(1)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가지+X>형에서는 ‘가다, 오다, 나오다, 나가다’ 이동동사와 더불어 ‘하다, 되다, 팔다, 잡다’ 등의 타동사, 그리고 사동 형태가 있는 동사 ‘입히다’가 나타난다. <어 갖 +X>형에서도 ‘가다, 오다’ 등의 이동동사와 ‘하다, 되다’ 등의 타동사가 나타나지만 <어 가지+X>형에서처럼 사동 형태의 동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이 그 예이다.

- (35) 어데라꼬 가가 인자 난리 피란했어. (45-8)
- (36) 부자가 왜가야 열 두 대문을 달고, 니비 종을 거느리고 ... (89-34)
- (37) 구지를 떡 해가지고 암만 씨도 그 날 팔십 냥 다 ... (147-11)
- (38) 백가질 잡아가여 대안에다가 땅을 파고 ... (89-27)
- (39) “이거 팔아가주고요, 우야든지 그거를 인자 양식을 ... (23-4)

위에서, <어 가지+X>형과 <어 갖+X>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출현 횟수가 이동동사만큼 높은 동사는 ‘하다, 되다’이다. 이들 동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하다, 되다’가 가장 생산성이 활발하고 의미기능적 제약이 적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연결어미 ‘-어’가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가지+X>형의 어원적 어형과 대응시켜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다음이 그것을 비교한 표이다.

<표 11>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관련 어형 실현양상(동사 전체)

<가지 +X> 형		
A	B	
가다(2), 오다(9), 내빼다(1) / 가다(7), 오다(1)	B-1	가다(2), 문장(2), 나가다(1), 내려가다(1) 물다(1), 타다(1), 뒹다(1), 꿂이다(1),
	B-2	가다(1), 나오다(2), 내려오다(2), 물다(1)

<표 12>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실현양상(동사 전체)

<어 가지 + X>형		
A	B	
가다(1) 하다(1), 되다(1) / 하다(52) 안하다(1) 못하다(1) 가다(36), 되다(22), 안되다(1) 오다(20), 못오다(1) 나오다(10), 잡다(11), 나가다(3)	B-1	하다(52), 못하다(1), 안하다(1) 가다(36), 되다(22), 안되다(1) 오다(20), 못오다(1), 사다(16), 잡다(11) 팔다(12), 나오다(10)
		오다(1), 나오다(1), 뒹다(1)
		오다(1)
		오다(1)
		팔다(1)
	B-2	오다(2), 하다(1), 나오다(1), 사다(1), 입 히다(1)

‘가지고’ 관련 어형 중 어원어에 해당하는 어형과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을 비교해 보면 ‘가다, 오다’ 이동동사의 출현 횟수만큼 ‘하다, 되다’의 출현 횟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이 ‘하다, 되다’ 동사는 부정형 ‘안’, ‘못’도 같이 나타남도 확인할 수 있다. ‘가지고’의 경우에는 [가아] 어형에서 ‘안’ 부정형이 1회 나타난 것이 유일했으나 ‘어 가지고’에서는 ‘안’ 부정형과 더불어 ‘못’ 부정형도 나타나며 그 출현 횟수도 훨씬 더 많아졌다. 다음이 그 예의 일부이다.

(40) 그 동안에 몬 있어가지고, 그래 인자 ...

(41) 안 해가 그자, 안 해노이, 그래 이, 우짚 사람이 하내이 ...

(23-5)

이는 ‘하다, 되다’ 동사의 출현과 연결어미 ‘-어’의 등장으로 일어난 현상이며 동시에 연결어미 ‘-어’의 의미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해 주는 현상이다.

‘하다, 되다’에 비해 그 출현 횟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가다, 오다’는 여전히 꾸준히 나타나며 어원적 어형과 그것의 의미기능에 여전히 일정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동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의 출현과 연결어미 ‘-어’의 출현으로 그 횟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전히 이동동사는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를 지탱하면서 문법화의 지속성 현상에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동사의 출현 횟수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며 어원적 어형에 영향을 끼치면서 문법화의 지속성 현상에도 관련하고²⁸⁾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가다, 오다’ 동사는 ‘이동’이라는 원래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동의 위치 및 또는 이동 대상에 따라 ‘장소 이동, 상태 변화, 감각 변화, 감정 변화, 시간 변화’ 등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면서 의미기능의 재분배 및 문법화의 층 만들기 현상에도 일조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관련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다, 되다’ 등의 동사의 출현으로 의미기능의 재분배 및 문법화의 층 만들기 현상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지고’에서 나타나는 사동형과 ‘어 가지고’에 나타나는 사동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대구 토박이말 ‘가지고’ 관련 어형 실현양상(사동형)

<가지 +X> 형		
A	B	
x	B-1	끓이다(1)
	B-2	x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지고’ 관련 어형을 정리한 표에서 사동사는 [가주고] 어형에 나타난 ‘끓이다’가 전부이고 단 1회 출현한다. 그렇지만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많은 사동형이 나타난다. 다음이 그것을 정리한 표이다.

<표 14>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관련 어형 실현양상(사동형)

<어 가지 + X>형				<어 갖 +X>형	
A	B	C	D	E	F
끓이다(5), 태우다(5) 내다(3), 들이다(3) 먹이다(2), 붙이다(2) 입히다(1), 키우다(1) 놀래다(1), 묻히다(1) 세우다(1) / x	시키다(2), 키우다(1) 먹이다(1), 묻히다(1) 물리다(1), 채우다(1) 들이다(2)	놀래다(2), 키우다(1) 불리다(1), 맞히다(1) 죽이다(1)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끓이다(1), 입히다(1)				

논의는 이견환(1998), 이기동(1977), 이수련(2001)의 논문을 참고하라.

특히 <어 가지+X>형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다음이 그 예이다.

- (42) 몽침이를 화닥닥 그래놓으이 놀래가지고 입에 물었던 ... (167-10)
- (43) 이 참 어렁광거렁광 키아가주고, 어렁광거렁광 키와가 ... (90-21)

이것 또한 연결어미 ‘-어’가, 어원적 어형에 기대면서, 사동형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피동형의 경우도 사동형처럼 <어 가지+X>형에서 나타난다. 다음이 그것을 정리한 표와 예의 일부이다.

<표 15>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실현양상(피동형)

<어 가지 + X>형				<어 갖 +X>형	
A	B	C	D	E	F
끼이다(1) 매달리다(1) 밀리다(1)	못 끼이다(1), 매달리다(2) 실리다(1), 잡히다(1) 벌어지다(1)	뽑히다(2) 날리다(1)	×	×	×
받히다(1)	×				
뺨치다(3)	×				
찢리다(1)	×	×	×	×	×
쳐박히다(1)	×				
홀이다(2) / ×	× ×				

- (44) 버들나무곁에 가이 총객이 떠억 매달리가주고, ...
- (45) 무시씨가 바람에 날리가지고 밑에 밭에 무시가 아주 굵고 ...

피동형도 사동형처럼 연결어미 ‘-어’가 출현 환경을 조성하였기에 나타나났을 거라 판단한다.

3) 형용사 실현양상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은 연결어미 ‘-어’가 나타나는 환경과 유사하다. 따라서 연결어미 ‘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형용사의 실현이다. 따라서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비록 어원적 어형에 기대어 있지만 형용사가 나타나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 16>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실현양상(형용사 전체)

<어 가지 + X>형				<어 갖 +X>형	
A	B	C	D	E	F
그렇다(96), 이렇다(37) 싫다(29), 좋다(3) 없다(2), 요렇다(1)	그렇다(33), 없다(7) 이렇다(5), 싫다(2) 좋다(2)	그렇다(17) 이렇다(6) 싫다(4) 없다(2) 못있다(1)	그렇다(1)	x	x
	x			x	
	x			x	
	x			x	
x	x	이렇다(1)			
	x				
	x			이렇다(1)	
	이렇다(1), 좋다(1)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는 ‘그렇다, 싫다, 없다, 좋다, 이렇다’이다. 이는 어원어에 해당하는 ‘가지고’에서 볼 수 없었던 양상으로 연결어미 ‘-어’가 붙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이 그 예의 일부이다.

(46) 그래가 아무도 안 산다 카이 개장국밥을 한 그룩 ... (23-6)

(47) ...고기다가 영어가 담고 담고 이래가주고 예, 술을 담았어요.

(89-27)

(48) 그래가 인자 마 일하기 좋아가주 마 홀로 모다가 ... (153-12)

(49) ‘또 마누라가 또 어떠키 인정을 하꼬’ 싫어가지고 그 말을 ...
(45-4)

특히 ‘그렇다, 이렇다’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해당 어형이 화용 표지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어원어의 원래적 의미기능보다는 담화적 기능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어원적 어형에 기대어 나타나는 양상이고 동시에 출현 횟수도 어원적 어형처럼 많이 나타난다.

4) 명사²⁹⁾ 실현양상

형용사의 경우처럼, ‘연결어미 ‘어’가 나타나는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은 연결어미 ‘어’의 영향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명사의 실현이다. 해당 토박이말에 나타나는 명사는 ‘색시’로서 [어가주구] 어형에서만 1회 나타난다. 다음이 그 예이다.

(50) ...없는 집 색시라도 양반의 색시라가주고 그래 이 색시가...
(89-5)

위의 명사 실현 예는 문법화의 층 만들기 현상이 [어가주구] 어형에서 가장 활발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역시 어원적 어형에서 나타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대구 토박이말의

29) 엄밀하게 말하면 ‘명사+(이)다’이다.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의 실현양상을 문법화의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 및 용언의 상관성에 기대어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지다’의 다양한 활용형 중에서 본 연구의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것은 [가아/ 가], [가주고], [가주]였다. 둘째,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아/ 가], [가주고], [가주]는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텍스트적 출현 횟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텍스트적 빈도와 문법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의사소통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이미 친숙히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새로운 것과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텍스트에서의 그 출현 횟수로 증명하였다. 셋째, 어원적 어형에서 나타났던 이동동사 ‘가다, 오다’는 연결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출현 횟수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원적 어형과 함께 나타나는 용언이 문법화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표면적 구조 형성에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문법화 과정에서 어원적 어형의 고빈도 출현 만큼 연결어미 ‘-어’의 영향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어원어에 기대어 어형을 형성하였지만 연결어미 ‘-어’의 영향은 타동사와 사동형, 피동형, 부정형 그리고 형용사와 명사의 수용에 더 적극적이었다. 타동사의 경우 ‘하다, 되다’의 출현 횟수가 많았다. 부정형의 경우 어원어에서는 ‘안-’형만 출현했는데,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못-’ 유형도 출현했다. 다섯째,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 및 용언의 상관성을 문법화 관련 현상과 연결지어 논의하면서, 대구 토박이말의 경우 ‘가지다’의 활용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가지고’ 어형과 ‘갖고(가쑈)’ 어형이 연결어미 ‘어’가 붙은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표준어와 다른 지역어의 영향 때문인 듯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서울 토박이말의 경우와의 비교에서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하며 다

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 : 어원어 고빈도 원리(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가지고(gajigo), 어 가지고(eo gajigo), 실현양상(Actualization phase), 어형(form of word), 텍스트(text)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토박이말 자료집(I)(IV)>.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김태엽(1987), ‘가지다’의 문법화, <대구어문논총 5>, 대구어문학회.
김미영(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길입(2006), ‘아니다’의 패턴 연구, <어문론총> 44, 한국문학언어학회.
민족문화연구소 편(200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총서 28,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박병선(2005), <한국어 계량적 연구 방법론>, 도서출판 역락.
박종갑(2006), <국어의미론(수정·증보판)>, 도서출판 박이정.
배주채(1994), 고흥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배주채(1997), 고흥방언의 용언어간의 축소, <국어학 연구의 새지평>, 서울: 태학사.
범금희(2002ㄱ),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1), <어문학> 75, 한국어문학회.
범금희(2002ㄴ),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2),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성낙수(1999), 경상도 방언에서의 ‘-어 가지고’의 접미사화 연구. <선

- 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건환(1996), 국어 이동동사의 의미 분석,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갑(1998), '-어/-어서'의 공시태에 대한 역사적 설명, <담화와 인지 5-2>, 담화인지문법언어학회.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 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상규(1982), 동남방언의 어미 '-어(가아)', <공포 조규설교수 화갑기념 국어학논총>.
- 이상민(1991), 울산방언의 동사의 접미사화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수련(2001), 소유 도식으로 본 <오다>, <가다>, <한글> 258, 한글학회.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도서출판 월인.
- 이효상(2000), 문법화 이론의 이해,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 차재은(2003), 국어 정보학의 응용방안. <한국어 교육, Vol.14 No.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한국구비문학대계(대구편).

Actualization phase for the native spoken of
Daegu related with {eo gajigo}

Beom, Geum-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 of grammaticiz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ga-a/ga], [gajugo] and [gaju] are the appropriate word forms among the various applicative forms of 'gajida' in etymological word the of this research. The second, [ga-a/ga], [gajugo] and [gaju] come under the etymological word, which continuously affect the word form that the '-eo' connected ending was binded with, and their appearance frequency in the text is high. The third, The active verbs of 'go, come' that appeared in the etymological word also comes forth continuously in the connecting end '-eo' binding form, and the appearance frequency in the text is also high. The fourth, We observed the relationship of the connecting end '-eo' under grammaticalization process. The last, in the case of the daegu native spoken, the word forms of [gajigo] and [gatgo] that didn't appear in the etymological word, which is estimated to be an effect of the standard language and the other dialect.

범금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712-741)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53-810-2110
전자우편: amaila@ynu.ac.kr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